# 주지스님은 보디빌더? 日스님의 이색시도

**오쿠보 스님, 보디빌더 대회 우승**
**경내 운동 시설 구축·채식 식단 등**
**향후 불교와 피트니스 접목 목표**
**어르신 신도위한 프로그램 계획도**

박영빈 객원기자



현역 보디빌더 선수로 활동하는 오쿠보 케이스케 스님. 사진출처=야후 재팬 뉴스

일본 카나가와(神奈川)현에 소재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현역 보디빌더로 화제다. 지난 7월 13일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 는 카나가와현 보디빌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오쿠보 케이스케 스님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일본 천태종 소속 오쿠보 케이스케 스님은 7월 1일, 일본 카나가와 현에서 열린 보디빌더 대회에서 신장 169㎝, 체중 80kg으로 출전해 여러 경쟁자들을 제치고 끝내 우승을 거머쥐었다. 스님은 '미스터 카나가와' 라는 타이틀을 받으면서 현 최고의 보디빌더라는 명예를 얻었다. 스님은 "최근 2주간 엄청난 압박으로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그 가운데서도 응원해주는 지인들과 운동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정신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뿐' 이란 말을 스스로에게 하며 준비를 잘 마친 결과 이런 명예를 얻게 됐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장래에 일본 전국 선수권에 출전해 모두에게 인정되는 보디빌더가되는 것이 꿈" 이라고 덧붙였다.

23세의 어린나이에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화제를 끌었지만, 현역의 주지스님이라는 점도 언론에의 주목을 받았다. 스님은 "속가 어머니의 집이 절이었기에, 어렸을 때는 몇 년 동안 외가였던 절에서 살았던 적도 있다"며 불가와의 인연을 전했다. 스님은 "당시 주지였던 외할아버지가 나를 많이 아껴주셨으며, 가족들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고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출가했다"며 출가계기를 전했다.

스님은 신체를 단련하는 것과 스님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며 웃어 보였다. 스님은 "아무래도 몸을 단련하다 보니 도량을 청소하거나 불구나 불단 등을 이동할 때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편하다. 또 아무래도 몸에 중심이 잡혀있다 보니 염불을 하거나 설법을 할 때 발성이 좋다는 점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스님의 향후 목표는 피트니스와 불교를 접목해 포교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스님은 현재 일본불교계에 대해서 "핵가족화의 진행이나 기존 신도의 고령화 등으로 전통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불교와 사찰에서 대중들이 멀어지고 있다. 꽤 젊은 나이에 주지 소임을 맡은 것을 살려 새로운 일을 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계획 중인 프로그램들은 사찰에서의 요가 교실이나 경내에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스님은 "피트니스에는 식단조절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기존 신도분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기에 영양균형이 잡힌 식사를 알려주거나, 함께 간단한 운동 등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 신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오쿠보 스님은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 "아무래도 생활체육과 관련된 내용들이기에 단순한 사찰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분들이나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싶다"며 진행방향을 설명했다. 일본에서의 불교문화는 생활에 자연스러운 문화의 하나인 경우가 많기에 "참가자 분들이 '이게 불교행사였어!' 라고 놀라며 알아가길 바란다" 고 전했다.

# 중국 공안, 티베트 불교 야단법석 중단

**참가자들 텐트 철거하고**
**모래만다라는 물로 파괴**



공안이 파괴하기전 거의 완성되었던 칼라차크라 모래만다라. 사진출처=자유 아시아 방송

중국의 칭하이성에서 봉행될 예정이었던 대규모 티베트 불교의 야외법회가 긴급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공안이 강제로 법석을 철거하고 이미 조성된 모래 만다라도 파괴했다고 전했다. 7월 20일 '자유 아시아 방송' 은 중국 공안이 중단시킨 '칼라차크라 법회' 에 대해 보도했다.

현 티베트 자치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옛 티베트의 암도지역이었던 칭하이성에서 봉행될 예정이었던 '칼라차크라 법회' 가 중국 공안에 의해 긴급 중단됐다. 현지 소식통들은 "7월 19일부터 봉행될 예정이었던 법회가 긴급 중단 조치를 받았다. 현재 현지 공안들은 이와 관련된 모든 사진과 온라인 뉴스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은 심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칼라차크라 법회는 티베트 불교권에서 열리는 대규모 관정 법회다. 티베트 불교도들에겐 이 법회에 참석하여 관정을 받은 이들은 다음 생에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성불에 이른다는 속설이 있어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모래만다라를 제작하고 관정을 위한 단을 세우는 등의 준비 작업에 많은 시간과 인원이 동원되기에 극소수의 큰스님들만이 칼라차크라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 티베트 불교권에서도 드물게 봉행되는 법회다.

그러나 법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중국 공안은 법회를 허가할 할 수 없다며 긴급 중단 조치를 내렸다. 공안은 참가자들이 묵는 천막을 허물고, 법회장에서 모래만다라와 법석을 준비하던 스님들을 해산시켰으며, 거의 완성된 모래만다라는 물을 뿌려 파괴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법회는 암도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인 아티사원 주최로, 방장인 따시 갸초 스님이 법주로 봉행될 예정이었다"면서 "현지 주민들은 오랫동안 당국에 따시 갸초 스님이 칼라차크라 법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해왔다" 고 전했다.

자유 아시아 방송 측은 "위성 사진등을 통해 실제 천막과 법회장이 철거됐음이 확인됐다. 암도, 혹은 칭하이성 지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당국은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불교 관련 시설등을 철거하는 등 티베트 불교에 대한 억업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칼라차크라 법회에 앞서 만다라를 조성하는데 며칠씩 걸리기에 이미 많은 신자들이 멀리서 찾아와 법회장으로 준비된 광장주변으로 천막을 치고 법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주최 측도 이들을 위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모두 마련해 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했다.

자유 아시아 방송은 현지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해 "주최 측은 행사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20만 위안(한화 약 3,500만원) 이상을 지불했으며, 참가자들에게 보시할 물품들은 모두 폐기됐다"면서 "현지 티베트인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당국에 그러한 종교집회를 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미얀마 군부, 대불 조성으로 민심 잡나

**거한 대리석 불상 · 공원 조성**
**"세계 평화 목표" 홍보 눈살**

미얀마 군부 정부가 대형불상을 조성, 불교도 국민의 마음잡기에 나섰다.

에이비씨 뉴스는 7월 2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조성되고 있는 거대 대리석 불상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홍보되고 있는 대리석 좌불상은 19m에 달한다. 불상이 안치될 부지는 92000㎡(약 2800평) 상당으로 전각과 각종 탑, 기도처 등이 공원 형식으로 조성된다. 8월 1일 공개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불상 조성은 미얀마 총리인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흘라잉 군 총사령관은 국영 언론을 통해 "미얀마가 상좌부 불교의 중심임을 알리는 동시에 국가 번영을 보여주는 불상"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태다.

에비씨 뉴스는 "흘라잉 군 총사령관은 장기 내전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도 불상 및 부지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국영 언론에서는 불상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리석 불상' 이라고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거대 불상 조성은 군이 민주화를 제압할 때 미얀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국민 90%가 불자인 미얀마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불상 조성과 승가 후원 등을 아끼지 않는다.

2009년 당시 군 통치자인 탄 쉐 장군은 양곤 쉐다곤 탑 옆에 파고다를, 2011년에는 5.37m 상당의 불상을 조성한 바 있다.

임은호 기자



미얀마 네피도에 조성되고 있는 19m에 달하는 대리석 좌불상과 공원. 사진출처=에이비씨뉴스

# 1000년 인도 불교유적지, 관광지 급부상

**트리푸라 주 정부 유적지 '필락'**
**사리탑 등 다수…부지 개발 박차**



불교 고고학 유적지 필락의 모습. 사진출처=트리푸라 투어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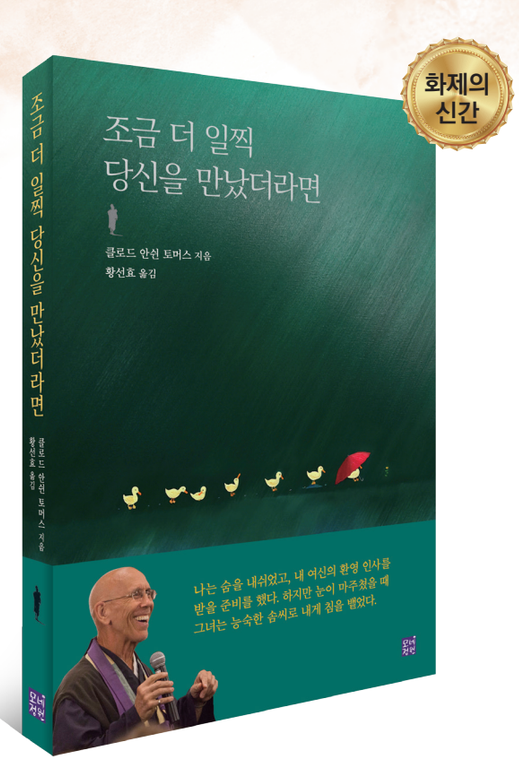
인도 북동부 트리푸라 주 정부가 1000년 된 불교 유적지 필락(pilak)을 고고학 여행 패키지로 구성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해당 지역은 9세기 제작된 관세음보살상을 포함한 다양한 고대 불교 조각품이 발굴된 곳이다.

현재 필락에서는 테라코타와 돌로 만든 사찰 명판, 조각품. 사리탑 등 고대 불교 문화재가 끈임없이 발굴되고 있다. 인도 고고학 조사(ASI)는 1990년부터 필락 유적지를 관리해 왔으며 벽돌 사리탑과 불상, 대승불교 조각품 등에서 나타난 양식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이 힌두교가 퍼지기 전 원래 불교 왕국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우탐 팔 주 관광부 수석 엔지니어는 "필락이 고고 유적지로 지정돼 150m 이내에는 영구적인 구조물을 지을 수 없지만, 제한 구역 밖으로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방문객들도 원활히 유적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시아 국가 불교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